

시론

통합특별시는 '일극'을 넘어선 지방주도 성장의 엔진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318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이다. 이는 전국 3위의 경제 규모이자 수출액 5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합특별시는 특별법을 통해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강력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물론 통합청사와 공공기관 배치 갈등이나 광주주의 자원 쏠림인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 갈등과 소외는 민관 합동 상생위원회 설치와 27개 시·군·구 간 세수 공유와 재정지원 분배구조 등 정교한 정책이 병행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균형발전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 경제개발은 수도권과 동남권 중심의 '성장거점' 방식이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서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그간 정부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이 높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해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수렴가

설'에 기대를 걸었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제감됨에 따라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저개발 지역으로, 노동은 고임금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고 선진 기술이 전파되는 '기술 확산'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데이터는 냉혹하게도 수렴이 아닌 격차의 확대를 보여준다. 1990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42.8%에서 50.7%로 치솟아 과반을 돌파하는 동안 호남권은 13.2%에서 9.7%로 급락했다. GRDP 비중 역시 수도권이 49.0%에서 53.3%로 절반을 넘기는 동안 호남권은 11.7%에서 8.6%로 하락했다. 이처럼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발산'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는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 규모의 경제로 우위를 점하는 '집적 경제'와 우수한 인재가 떠나는 '두뇌 유출'이 결합한 결과다. 뒤르달(Myrdal)이 경고한 '누적적 인과관계'로 지역 간 양극화가 고착화된 셈이다. 지금 한국은 수도권·충청권 권역과 영호남·강원 비수도권 권역으로 양극화돼 권역별로 동조화되는 '클립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질의 민간 일자리(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및 신산업)와 인적 자본(청년층)의 유출은 지방 소멸의 결정타가 되고 있다.

이제는 통합을 넘어 구체적인 시너지 전략을 실행할 때이다. 과거 한 뿌리였던 전남과 광주 통합은 국토 공간의 구조를 '일극'에서 '다극'으로, 첨단 기술의 수도권 편중에서 지역 특화로, 중앙정부의 획일화에서 지방정부의 광역화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기가 돼야 한다. 성공의 열쇠는 먹고사는 문제로 '사람(인재)'과 '기업'에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가 실질적인 법적·재정적 자율권을 행사하고 규제 완화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 TF가 즉시 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자원이 쏠리지 않고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핵 거점형 발전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이 모형은 지방중심도시와 읍·면을 연계한 지방중추거점도시권을 구축하여(서남권) 지역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공공주도 출자와 병행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성과 공유 체계로 정부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광주의 도시 서비스 기능과 전남의 산업·자연 자원을 결합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소품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소비와 투자가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첨단산업이나 전문 서비스업 일자리가 창출되면 약 5개의 연관 서비스업(의식, 문화, 교육 등) 일자리가 창출된다. 고용승수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미래 핵심 전략이 바로 에너지, AI, 문화관광을 잇는 '트라이앵글 성장 벨트'다. 광주의 첨단 AI·반도체 인프라와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거점을 결합해 RE100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서·남해의 섬과 해안 관광 거점과 광주의 문화 콘텐츠를 융합해 세계적인 체류형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합치가 아니고 수도권과 상생하면서 독자적이고 강력한 '남부경제권'을 구축하는 국가생존 전략이다. 앞으로 추진 과정은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의 공감을 얻는 민주적 절차로 채워져야 한다.

자치칼럼

어머니의 목소리, 녹명(鹿鳴)



이 계 앙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몸자주자시민들 공동대표

인터네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태희)이라는 글을 읽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맨얼굴, 가장 아름다운 손은 빈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침묵, 가장 아름다운 대화는 미소 짓는 입,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십자가 밑에 꿇어앉아 눈을 감는 것, 가장 아름다운 친구는 그리워하는 사이' 등등 하나같이 공감이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일까. 어릴 적 석양 무렵에 정신없이 골목에서 놀고 있을 때 "OO야, 밥 먹어!"고 부르던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쓴 시가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다 /내가 놀던 신천동 골목 끝/땅거미 지는 저녁/밥이 쪄진 전신주/희미한 보안등 불빛 아래/행주차 마른 채로/밥 먹으러 오나라 /손짓하며 소리치던 어머니/반가운 목소리다/이제는 그 목소리를 수 없이/내가 울면서 소리친다/어머니 진지 드시러 오세요/어머니 배고프실까봐/멀리 밤하늘을 향해/달을 보고 소리친다'(「녹명(鹿鳴)」, 정호승)

녹명(鹿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편에 '유우녹명(鹿鳴 食野之)'이란 구절이 있다. "우·우하고 우는 사슴의 무리, 들에서 햇썩

을 뜯는다"는 뜻으로 사슴 무리가 평화롭게 울며 풀을 뜯는 풍경을 어진 신하들과 임금 이 함께 어울리는 것에 비유하였다. 썩을 뜯던 사슴이 "우우"하는 울음으로 배고픈 동료 사슴들을 불러 먹이를 나눠 먹고자 모으는 소리란다.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은 먹을 것을 발견하면 일단 주위를 살핀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 혼자 먹기에 좋은 곳, 숨을(길) 곳을 찾는다.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발견한 개들의 행동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슴은 다르다. 사슴의 울음소리 즉 녹명(鹿鳴)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같이 나눠 먹자고, 같이 살자고 배고픈 동료들을 부르는 소리다. 어린 시절 밥 지어 놓고 자녀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겹친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 능력주의 사회라 일컫는다. 이런 사회에서 일확천금, 한탕주의에 매료돼 무한 경쟁을 통해 각자도생을 도모하며 승자 독식 하려고 영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위험사회, 피로사회며, 비교 경쟁 투쟁 감시사회다. 혼자 빛나려다 불행한 개인이 되는 구조다. 이것이 점점 대체가 돼 고착 상태에 이르고 있다.

맹수들의 정글과 같은 현대 사회는 오로지 생존 자체가 삶의 의의요 목표인 것 같은 참혹함을 느끼며 '녹명(鹿鳴)'을 간절히 마음으로 열망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무찌르며 광분하던 1980년 5월 계엄군의 살벌한 살육의 현장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여기, 밥'을 외치던 이름없는 광주시민들의 '녹명(鹿鳴)!', 2024년 12월3일 계엄군의 탱크를 막아서며 '나를

밟고 지나가라'며 목숨 건 수많은 시민들의 '녹명(鹿鳴)'. 이뿐인가! 가난한 청년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의 돈으로 김치찌개를 위한 제공하는 식당들의 녹명(鹿鳴), 미리 밥값을 지불해 놓고 어려운 이웃 누구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라는 '미래내 쿠폰'과 광주의 '홍시감' 녹명(鹿鳴)도 있다. 또 각종 식재료와 반찬 등을 넣어두어 끼니가 어려운 이웃들이 꺼내갈 수 있게 하는 행정복지센터나 동네 골목길의 '공유냉장고'도 훌륭한 녹명(鹿鳴)이다.

그 외에도 긴 시간 각고의 노력으로 쌓은 식견이나 기술을 지역 주민이나 소외계층 시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소중한 녹명(鹿鳴)이다.

경쟁을 통해 이기고 성공해야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척하고 소외시키며 짓밟고자 하는 현실들이 아프고 무섭고 슬프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면 그 남이 결국 내가 될 수 있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협력(協力)하는 것은 내 몸속의 유전자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한다. 모두 잘 살 수 있는, 내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남을 잘 살도록 배려하고 돕는 일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바람이라 믿는다. 정녕 아름다운 사람이고자 한다면 인정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잘 먹고 함께 잘 살자'는 녹명(鹿鳴)이 골목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길 소망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녹명(鹿鳴)!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社說

4인4색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필요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자 석가탄신일 연휴를 맞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에 도전하는 후보들도 지역 곳곳을 누비며 표심 경쟁에 몰두했다. 새벽부터 지지자를 만나 구애하거나 대규모 출정식을 갖는 등 세몰이에 나섰다.

김대중 후보는 'K-민주, 시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라는 슬로건을 공표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정선 후보는 목포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으며 학생수당 연 120만원 지급, 전남 미래명장 100인 프로젝트 등 공약을 발표했다. 장관호 후보는 가장 먼저 광주송정역에서 서울 용산·수서발 광주 도차 열차 탑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강숙영 후보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고교생 흥기 피살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 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며 일정에 들어갔다.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역사적인 교육통합의 적임자라면 4인4색으로 유권자와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에 따라 선거권역이 크게 넓어져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광주도심권부터 전남의 농산어촌까지 거리지 않고 훑아

갈 태세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8명에 달했지만 단일화를 통해 절반으로 압축돼 대결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지지선언도 잇따랐다.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중대성에도 걸림이 선거라는 비판이 여전히 실정이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막강한 권한에 광주전남의 경우 판이 더 커졌으나 그들만의 리그에 머무른 모습이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20년이 돼가고 있다. 수많은 교직원에 대한 인사, 전문학적 예산 편성과 집행,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 수립, 학교의 신설과 폐지까지 모두 결정하는 자리다. 이전과 같이 이름과 공약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가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토론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정선·김대중 후보는 오는 26일 오후 1시55분부터 2시50분까지 광주MBC 2층 공개홀에서 생방송된다. 장관호·강숙영 후보는 같은 날 오후 3시55분부터 4시50분까지 참여한다.

전남광주 통합교육의 미래가 걸렸다. 선거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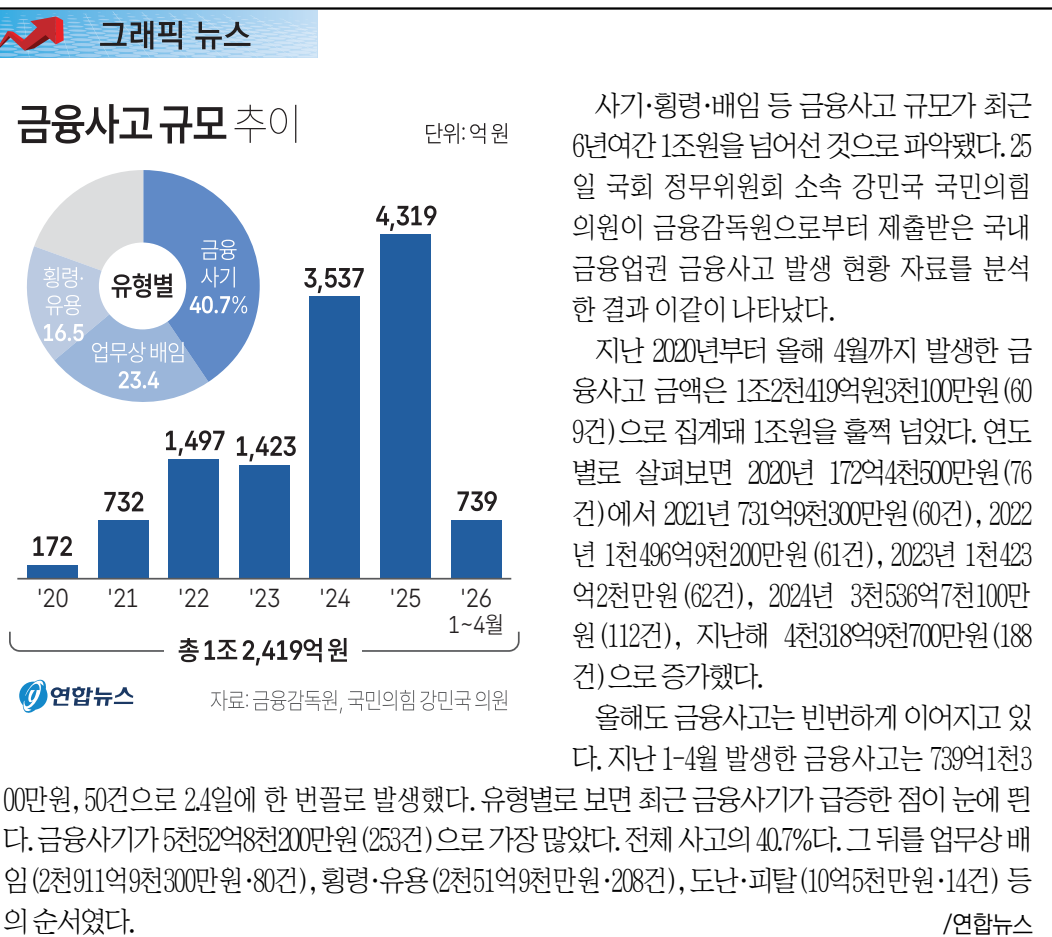
AI시대 전력 병목 해소 민간 송전망 참여는 당연

글로벌 신산업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전력망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체계만으로는 송전망 확충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국회에서 국가기간전력망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상시위원회인 기후노동위 전제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개발 주체를 '전기사업법' 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한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민간까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점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 수요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금처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치명적인 타격이다. 기간 송전망에 참여의 폭을 확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길 국회의원(광주동남)은 "한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송전망에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는 전환점"이라고 역설했다.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AI, 반도체, 에너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담보할 전략 산업이기도 하다.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매개체로 역할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남도는 '제1차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신해남-신장성 96km, 신해남-신강진 27km 구간 등 총 123km 송전선로를 비롯해 서해안 HVDC(고압직류선)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345kV 이상의 핵심 송전선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대거 지정됐다. 출력제한이 해제되면 송전역에서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전기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송전할 길이 열렸다. RE100산업단지 역시 국내 곳곳에서 조성할 기반을 구비했다. 국내의 우수한 AI 기업은 물론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유치도 가능해졌다.

전력망 부족 때문에 투자를 미룬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더 지체할 일이 아니다. 서둘러야 한다. 진작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했다. 늦은 감이 많다. 송전망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되길 바란다.



독자투고

물품 대리구매사기, 지역민들 경각심 필요

최근 공공기관이나 업체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범죄 수법도 점점 치밀해져 실제 기관 명의로 담당자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 공문이나 계약서를 제시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특히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 관공서의 업무처럼 꾸며 지역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업체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자나 메신저만 믿고 거래를 진행하거나 선입금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또한 지나치게 급한 납품 요구나 특정 업체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경찰은 기관 사칭 및 물품 대리구매 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받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경각심이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112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단(1394)에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종현·강진경철서 읍내지구대>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濼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